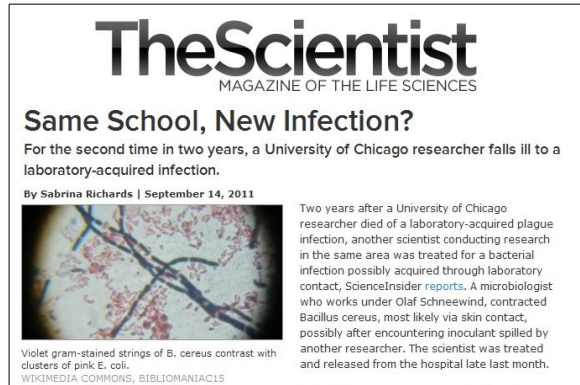


##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원 *B. cereus* 감염사고



2011년 8월 27일,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(*B. cereus*)을 연구하던 연구원이 연구 중이던 세균에 피부가 감염되어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는 사고 발생

### 1. 사고 개요

- 가. 일 시 : 2011년 8월 27일(토)
- 나. 장 소 : 미국 시카고대학교 Cummings Life Science Center
- 다. 사고 유형 : 바이러스/세균 감염사고
- 라. 피해 현황 : 세균감염 1명

### 2. 사고 경위

- 가. '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BL-2 Lab'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*B. cereus*를 연구하던 시카고대학의 여성 연구원이 연구 중이던 세균에 피부가 감염되어 병원에서 감염된 피부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과 함께 항생제 치료를 받는 사고 발생
- 나. 대학당국은 예방차원에서 실험실을 소독하고 질병관리본부 및 지역보건기관 등에 감염 사실을 통보하였으며, 연구원의 가족 및 동료에게 항생제를 제공함
- 다. 2년 전 시카고대학은 흑사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(*Yersinia pestis*)를 연구하던 교수가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[‘실험실 사고사례 제2009-13호’ 참조]

### 3. 사고 원인

정확한 감염 경로와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나, 적절하게 밀봉되지 못한 연구원의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됨

### 4.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

- 가.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, 실험 등은 [SNU IBC 서울대학교생물안전위원회\(☎880-5153\)](#)를 통해 **사전에 그 위험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 받은 후 생물안전연구시설에서 실시**할 것
- 나.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<http://cdc.go.kr> 및 참고문헌 등을 통해 **사전에 취급하는 생물재제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**할 것
- 다. **BSL-2 이상의 생물자원을 취급하는 연구원은 그 위험도에 따른 실험 술기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수행**하고, **감염성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원은 실험 전 혈청을 보관하고, 해당 병원체의 백신이 있는 경우 사전 접종**할 것

\* *B. cereus* (*Bacillus cereus*, 바실러스 세레우스)  
135°C에서 4시간 가열에도 견디는 호기성간균으로, 사람의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토양, 농장, 산야, 하천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토양세균의 일종.